

선원노련 전국대의원대회 찾아, 선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해

- 송명달 해수부 차관, 2025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
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 -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14일(금)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‘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’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.

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1946년 설립되어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, 선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.

송 차관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▲28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전문성을 가지고 준서선을 운용한 ‘한상호’ HJ중공업 선단장 ▲26년 동안 광석과 석탄 등 국가 전략물자와 원자재의 안전한 해상운송에 기여한 ‘황규선’ 대한상선 기관장 등 총 8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표창을 수여하며 우리 선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였다.

송 차관은 축사를 통해 “선원은 우리나라 수출입 해상물류체계의 필수 인력이며, 국민 먹거리인 수산물 생산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주역이다.”라며, “선원이 더 오래, 더 행복하게 근무하고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‘선원이 곧 해양수산업의 근본이다.’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.”라고 말했다. 또한, “최근 반복된 어선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, 어선사고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민석 (044-200-5740)
		담당자	사무관	류충현 (044-200-5745)